



아스널의 박주영(왼쪽)이 2일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르세유와의 2011-2011 UEFA 챔피언스리그경기에서 제레미 모렐과 공을 다투고 있다.

Sports

체조협 '점수 조작설' 제기 신수지 근신 처분

심판 3명에게도 경고 조치

지난달 끝난 전국체전에서 심판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 파문을 일으킨 리듬체조 간판선수 신수지(20·세종대·사진)가 대한체조협회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았다. 협회는 최근 상법위원회를 열어 신수지에게 경고성 근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당시 심판 운영과 대회 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록심판이었던 강희선 사태는 일과만과로 확대됐다.



협회는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 신수지 측과 당시 심판들의 주장들을 듣고 전광판에 점수 게시 과정과 대회 운영에 오류가 있었

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신수지의 주장처럼 채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이번 주중 대한체육회에 보고 할 예정이다. 한편 신수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사흘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페자부활전'에서 2012년 런던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도전한다. '페자부활전'에는 지난 9월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각 나라 선수 24명이 참가해 5장의 티켓을 놓고 최후의 일전을 펼친다. /연합뉴스

신들린 메시, 바르셀로나 통산 200골 돌파

챔스리그 원정서 해트트릭

'마리도니의 재림' 리오넬 메시(24·아르헨티나)가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클럽 바르셀로나에서 통산 200호를 넘어서면서 신들린 드짐력을 과시했다. 메시는 2일 새벽(한국시간) 열린 빅토리아 플렌(체코)과의 2011-2012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고 팀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이날 경기에서 앞서 바르셀로나 입단 이후 통산 199골을 기록 중이었던 메시는 전반 24

분 페널티킥으로 200호를 완성했고, 전반 추가 시간과 후반 추가 시간 빼기골과 마무리골까지 책임지며 통산 202호골을 달성했다. 메시는 경기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통산 200골을 넣은 것과 경기 결과에 만족한다"며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고 상대팀의 파울도 심해서 쉽지 않은 경기였다. 그래도 잘해냈다"고 밝혔다.

아직 24세에 불과한 메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1940~1950년대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로 최다골(235골) 기록을 세운 세사르 로드리게스를 뛰어넘는 것이다. /연합뉴스

메시 등 23명 발롱도르 후보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의 선수에 해당하는 FIFA 발롱도르(Ballond or) 수상 후보 23명을 2일 발표했다.

FIFA 발롱도르는 2010년까지 별도로 시상하던 FIFA 올해의 선수와 프랑스 월드컵에 선정하는 발롱도르를 통합한 상으로 지난해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초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후보 명단에는 메시를 포함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스페인), 웨인 루니(잉글랜드), 베슬리니 스네이더(네덜란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박주영 챔스리그 데뷔전 '슈팅 제로'

원톱 선발 출전 부진 후반 교체.. 팀은 0대0 무승부

'테극전사 캔틴' 박주영(아스널)이 마침내 '꿈의 무대'로 솟구치는 2011-2012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박주영은 2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르세유 F조 4차전 홈 경기에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선발출전해 후반 17분까지 62분을 뛰다가 가로빈 판 페르시와 교체됐다.

지난 시즌 2부로 강등된 AS모나코(프랑스)를 떠나면서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팀을 '새로운 등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박주영은 아스널 입단으로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아스널은 마르세유의 강력한 수비벽을 뚫지 못하면서 0-0으로 비겼고, 2승2무(승점 8)로 조 선두를 지키는 데 만족해야 했다.

박주영도 아직 팀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

하면서 단 한 개의 슈팅도 하지 못한 채 공중볼 디롭과 동료에게 볼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며 '슈팅 제로'의 기록만을 남기고 UEFA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마쳤다.

애초 교체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영국 언론의 예측을 깨고 아르센 웰커 감독은 주득점원인 판 페르시를 교체선수로 놓고 박주영에게 원톱 스트라이커를 맡기는 '깜짝 전술'을 내세웠다.

이로써 박주영은 설기현(울산)을 시작으로 송중기(톈진), 이천수(오미야), 이영표,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주호(바젤) 등에 이어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밟은 한국인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박주영은 전반 42분 역습 상황에서 적진으로 쇄도했지만 램지의 패스가 짧아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